무지개 눈물

(창9:1~17)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무지개 눈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무지개 눈물'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지개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공통된 느낌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over the rainbow"라는 팝송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겠지요.
그 첫 소절과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어설픈 발음으로 한 번 읽어 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 Way up high /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이것을 번역을 하면?
무지개 넘어 / 위로 뻗은 높게 난 길이 있는데 / 그곳 어디엔가 내가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어릴 때 들었던 나라가 있다.

참 아름다워요. 그렇게 시작한 노래가 아주 긴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If happy little bluebirds fly beyond the rainbow / Why, oh why can't I?
만약에 행복한 작은 파랑새가 무지개 너머로 날아간다면 / 왜, 나는 무지개 너머로 날아갈 수 없겠느냐?

무지개 너머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꿈을 실현한다는 뜻이겠죠.
자장가로 들은 그 아름다운 나라, 꿈의 나라, 그 평안한 나라가 무지개 너머에 있는데, 행복한 파랑새가 날갯짓을 하면서 무지개 너머로 넘어가서 그 행복한 평안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작은 파랑새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예언자들이 됩니다.
무지개를 보면 뭔가 저마다에게 주시는 싸인 같고 그래서 꿈이 이루어 질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셰익스피어라는 대문호도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지개에 다른 색을 첨가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셰익스피어가 하나마나한 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뜻으로 말한 것 같습니까?
색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야! 아름답다'고 느낄 때에 그 아름다움이 조화로운 색, 아름다운 색, 화려한 색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개에 색을 보탠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물정모르는 무지개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온 지구위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꿈의 실현을 확신하고 있을 때, 아름다움에 취해 있을 때, 딱 한 분 울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기상학적, 물리학적측면에서는 태양빛이 빗방울에 비춰서 빛이 산란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지만,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눈물에 닿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당신의 눈물에 비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사

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파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허락하신 것이 채소와 나무 열매였는데, 본문에서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고기를 먹을 때에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피 째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 말씀에 이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 쌍방 간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혼자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구름 위에 뜨면 다시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렇게 홍수를 통해서 지구 전체의 인간 세상을 멸절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구름이 보이면 너무 더러워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를 내려서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겨우심으로 노아의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셨지만,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인간들이 아담의 유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 지구는 다시 노아의 홍수 이전 때처럼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결심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움과 부패가 다시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인격적 기질상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구름을 보실 때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쓸어버리고 싶으신 생각이 굴뚝같지만 구름 사이에 뜬 무지개를 보면서 그 쓸어버리고 싶으신 욕망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제하시고 억제하시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가 더러워져요. 차가 더러워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차장에 가서 강력하게 뿜어대는 물로 쫙 끼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지구와 인간 세상을 보시면서 갖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 더러움을 용납 못하시는데 무지개를 보면서 참고 억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이 구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면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을 그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것이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켜서 복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진

의를 모르고, 구약적 축복관을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개가 꿈과 희망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니까.
셰익스피어같이 머리 좋고 문장력 좋고 탁월한 사람조차도 물정모르고 무지개는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율법에 얽혀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던가에 대한 몰이해가 아주 만연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성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원죄 때문에 인간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원죄가 뭡니까?
육체에 매여 있는 상태, 육체를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대상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가족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상황과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재산들, 자동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계획과 프로젝트, 일과 과제들 이런 것들이 또 대상일 수 있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것들에 마음이 첫 번째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이 다 악이에요.
이걸 8:21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으로 부터 마음이 반응하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부터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요. 이게 육체가 되는 것이고 만지는 것들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간관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인간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인간관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관계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들인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몸으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표현이 되는 인간이 본래의 인간상인데, 이제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노아의 홍수를 거쳤어도 여전히 그것이 유전되어 가면서 육체가 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의 인간상을 보실 때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고깃덩어리였습니다. 본래의 인간과 견주어 볼 때 지금 지구 위에 있는 인간들의 실상은 하나님 눈에는 고깃덩어리로 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육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 고깃덩어리들을 실제 인간으로 전제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허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인간의 현실을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으로 전제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죄악에 먹혀버리고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을 고깃덩어리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관계의 대상으로 전제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로 죄를 묵과하시거나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먹힌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상 쓸어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육체가 되고 고깃덩어리가 된 존재들을 관계해야 될 사람으로 끌어안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당신의 속성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대응을 부인해야 하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에서 나오는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무지개가 있는 걸 보면 기억하리라”고 하셨지만, 논리상으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누가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무지개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사랑의 빛이 당신의 눈물을 통해 나타날 때에 ‘왜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었을까? 내가 아들과 영원 전부터 누리고 있는 이 기가 막힌 기쁨과 평강에 참여하도록 만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다가 버러지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종속되어서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저렇게 지렁이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내가 저 지렁이들을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끌어안으시는 사랑과 당신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한 단계 뒤로 물러서고 부인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정의로움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죄악에 먹힌 인간들과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공의로움이 표현 되는데, 그게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인 육식을 허용하신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육식을 허용하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말이 많아요.
원래 창세기 1장 29절에 채식을 명하셨을 때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육식도 허용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는 육식에 대한 욕구가 없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서 채식만 한 것이라고 분분하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타락 전에는 열매만 먹고 채식만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채로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채식만 먹어도 되었던 모양이죠. 지금도 채식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육식을 허용하셨느냐?
그리고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피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엄청 강조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선지해장국을 먹고 있고, 순대를 먹고 있는데 다 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에 대한 자유로움을 선언하셔서 다 먹고 있습니다만, 참 의미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먹긴 먹지만,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육식을 허용하신 의도는 죄에 먹힌 인간들이 실재 인간임을 전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도 당연한 것이고 괜찮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설정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죄에 먹혀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처분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기는 것 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에 먹혀있는 인간을 인간으로 전제하시고 관계하시려면, 적어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 인간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사이고 동물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것이고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왜 흘려야 합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에 먹혀있는 인간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 때마다 죄의 상태로 죽임을 당한다면 아무도 남을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만드신 차선책이 바로 동물 제사라는 겁니다.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생명 값을 대신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육식은 제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물을 죽일 수밖에 없어서 고기를 먹게 되면, 제사 때에만 먹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모든 육식의 밑바닥에는 제사 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먹도록 만드신 이유가 제사의 연장선에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서 고기를 먹었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식이 허용된 시발점이 바로 죄악 된 인간의 실제 모습을 관계의 대상으로 전제하시고, 그러나 죄를 허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제사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육식을 허용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는다고 죄가 사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구약에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종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게 되는 하나님 마음의 시발점은 바로 제사를 염두에 두고, 죄악 된 인간의 현실을 전제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온 것이 육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피째 먹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진 것이 아니라, 생명과 피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죄악 된 인간과 하나님이 관계하실 때에 이 피와 생명이 연결됨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매개물을 통해서 관계가 가능해지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하신다는 것에서 죄인 됨을 전제하시고 3,000년 전이라고 하면, 3,0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이 무지개 언약 속에서 그 의미가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제시하십니까?
그것은 죄악 된 인간 구조를 전제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내용도 신약에 와서 확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죄악 된 인간됨을 전제로 할 때에, 죄악 된 상태의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면서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생각되는 죄악 된 판단에 의한 가치들을 허락하시며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된 상태로 태어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죄악 된 인간과 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시면서 그 죄악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면 인간이

죄악 된 판단에서 좋다고 했던 돈과 장수와 명예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관철되면서 선민과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 것으로 무지개 언약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 마음 아파하시는 그 사랑의 빛이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 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된 상태가 정상인줄 알고 있는 우리들의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죄인 됨을 전제하시며 당신의 거룩하신 속성을 한 걸음 뒤로 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관계하시기 위해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 된 위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